노쇠한 양키스, 매팅리 시대 다시 오나

〈14년간 PO행 딱 1번〉

ML 인사이드

'악의 제국' 아 옛날이여

월드시리즈 27회 우승에 빛나는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팀 뉴욕 양키스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악의 제국(the evil of empire)'이라는 닉네임처럼 스토브리그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초특급 선수들을 싹쓸이하던 예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소리아노·마틴 등 알짜 선수들 이적 불구
보강선수는 유킬리스· 해프너 등 고만고만
리베라·페티트·이치로 등 주력 노쇠 큰 문제

불펜·팜 시스템 부실…선발 대체자원 없어
로드리게스 빠진 타선…지터마저 발목 부상



'영원한 제국'은 없다.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의 뉴욕 양키스 스프링캠프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는 에이스 CC 사바시아(왼쪽 3번째)의 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인다. 양키스는 주축선수들의 부상과 이적, 그리고 세대교체의 실패로 올 시즌 고전할 전망이다. 탬파(미 플로리다주) | 로이터연합뉴스

●전력누수에 주축선수들은 노쇠화

지난해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접은 마리아노 리베라를 대신해 마무리를 맡았던 라파엘 소리아노가 2년간 28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워싱턴 내셔널스로 이적했고, 주전 포수 러셀 마틴도 2년간 1700만달러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둥지를 옮기는 등 양키스의 전력에는 누수가 생겼다. 반면 이번 오프시즌 보강한 주요 선수로는 34세의 3루수 케빈 유킬리스, 35세의 지명타자 트래비스 해프너, 34세의 후안 리베라 정도다. 잭 그레인키, 류현진 등을 영입하며 빅리그의 큰 손으로 부상한 LA 다저스에게 최고 연봉 구단 타이틀도 내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엉덩이 부상 때문에 올 시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금지약물 복용 파문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어 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무엇보다 양키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올 11월이면 만 44세가 되는 리베라를 위시해 앤디 페티트(40), 스즈키 이치로(39), 데릭 지터(38), 로드리게스(37), 구로다 히로키(37) 등 주축선수들의 노쇠화다.

●약화된 불펜과 타선, 안방도 고민

올 시즌 양키스의 선발로테이션은 CC 사바시아~구로다~페티트~필 휴즈~이반 노바로 구성되지만, 부상 등으로 뜻하지 않은 공백이 생겼을 경우 대체 자원이 마땅치 않다. 데이비드 로버트슨, 조바 챔벌레인이 주축을 이룰 셋업맨에는 분 로건만이 경험 풍부한 좌완투수여서 불펜에 과부화가 걸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 팜 시스템도 형편없어 마이너리그에서 승격시켜 당장 전력에 보탬을 줄 만한 선수도 찾기 힘들다. 로드리게스가 장기간 라인업에서 빠지게 될 타선에도 고민이 많다. 지난 시즌 1루수 마크 테셰라는 고작 84타점을 올리는 데 그쳐 2003년 루키시즌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다. 중견수 커티스 그랜더슨은 43홈런을 때려 메이저리그 전체 2위에 올랐지만, 생애 최저 타율인 0.232에 삼진을 무려 195개나 당했다. 특히 6월 중순 이후에는 타율이 0.212로 부진했다. 216안타를 때려 아메리칸리그 최다안타 1위를 차지한 지터는 포스트시즌에서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올 시즌 활약이 미지수다. 연봉이 1200만달러인 유킬리스도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생애 최저인 0.235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특히 러셀이 빠져나간 안방은 최대 고민이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프란시스코 세르벨리(184경기), 크리스 스튜어트(148경기), 어스틴 로마인(9경기)이 번갈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중량감이 떨어진다.

●심상찮은 조짐, 양키스의 침체기 재현되나?

현재 전력이라면 양키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만 해도 지난 시즌 센세이션을 일으킨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비롯해 신흥 명문구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탬파베이 레이스, 오프시즌 동안 전력을 알차게 보강한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 어쩌면 영원한 라이벌 레드삭스와 지구에서 최하위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일각에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던 양키스의 침체기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양키스 구단 역사에서 1982년부터 1995년까지를 암흑기로 표현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 양키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는 현재 LA 다저스 감독을 맡고 있는 돈 매팅리였다. 매팅리가 이끈 양키스는 딱 한 차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뿐이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 연속 승률이 5할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1990년에는 아메리칸리그 승률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심지어 1990년 7월 2일 양키스 선발 앤디 호킨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대결에서 노히트 경기를 펼치고도 패전투수가 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이 경기에서 0-4로 패했는데, 이는 20세기 이후 노히트 경기를 펼치고도 가장 많은 점수차로 진 경기였다.

지터, 리베라, 버니 윌리엄스, 호르헤 포사다 등이 주전으로 발돋움하며 맹활약을 펼친 1994년 양키스는 리그 최고 승률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지만, 선수노조의 파업으로 시즌이 취소돼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차지하려던 매팅리의 꿈은 또 다시 무산됐다. 매팅리의 현역 마지막 시즌이었던 1995년 양키스는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5전3선승제 대결에서 양키스는 첫 두 경기를 승리한 뒤 충격의 3연패를 당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결국 등부상에 시달렸던 매팅리는 은퇴를 선언하고 정들었던 줄무늬 유니폼을 벗었다. 올 시즌 전망에 대해 양키스 조 지라디 감독은 "여전히 뛰어난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수선한 양키스를 보면 암울했던 '매팅리 시대'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프로야구 최연소 주전 키스톤 콤비인 KIA 안치홍(왼쪽)과 김선빈은 올해 팀 우승과 내년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을 꿈꾸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진지해진 안치홍·김선빈 "올해 꼭 우승…AG 간다"

작년 마무리 캠프부터 훈련 올인
"2014 AG 참가해 병역문제 해결"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이다.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일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KIA 유격수 김선빈(24)-2루수 안치홍(23) 키스톤콤비를 보는 팀 내 시각이다. 올해로 각각 프로 6년차(김선빈), 5년차(안치홍)가 되는 만큼, 단순히 젊은 주전선수가 아니라 팀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둘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KIA의 우승과 더불어 내년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이다. 둘이 "올해는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며 선동열 감독을 오히려 압박(?)하는 것도 올해 우승 후 선 감독이 내년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자신들을 택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병역 미필자인 안치홍과 김선빈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병역 해결의 기회다.

김선빈은 "올해 부상 없이 뛰는 게 1차 목표"라며 "반드시 우승해 내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꼭 따고 싶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는다. 애리조나 1차 캠프에서부터 일찌감치 몸을 만든 덕에 14일 니혼햄과의 오키나와 첫 연습경기에서 좌익선상 2루타를 때리는 등 타격감도 차근차근 끌어올리고 있다. 안치홍과 함께 애리조나에서 수비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수비력 역시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마무리 캠프부터 수비 자신감 회복에 매달렸던 안치홍도 땀의 효과를 보고 있다. 오키나와로 이동한 뒤 타격훈련에도 열심인 그는 신인으로서 우승에 큰 힘을 보탠 2009년에 버금가는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순철 수석코치는 안치홍과 김선빈에 대해 "앞으로 10년 이상 KIA 내야진을 이끌고 갈 선수들"이라며 "입단 후 각자 좌절도 맛본 게 오히려 약이 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따로 또 같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김선빈과 안치홍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단 한번 '뉴 맨'!! 평생 단단한 놈!!





대표이사 서영숙

www.newm.kr

NAVER 뉴맨

네이버에 뉴맨을 검색하세요.

· 일본지사 T. 03-6278-9461
· 중국지사 T. 0433-286-5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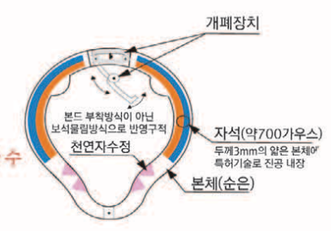
▶ 남자는 원한다!
킨제이 보고서에서 20대는 하루1회 30대 주4회 40대 주2회 50대 주1회 60대는 월3회 정도의 성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낸바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 남자가 변한다!
'뉴 맨'은 젊고 발기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 강직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이상의 남성에게 믿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단단하고 강해져 횟수와 시간에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준다.

▶ 최장! 최다의 기록! '뉴 맨'!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 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발명특허를 받은 '뉴 맨'은 2005년 각종신문매체에 광고 판매를 시작, 현재 8년간 8천여회의 신문광고로 단일제품 사상 전무후무한 최장기간, 최다매체의 광고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20여개국 수출, 50만 고객돌파의 쾌거도 이루었다. 50만 고객의 의미는 100만 고객일 것이다.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동 · 정맥위치와 역할을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 천연자수정의 원적외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상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집을

뉴맨 단면도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써 새벽의 강한 발기와 관계시의 힘찬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5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몸통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8년간 지켜 온 뉴맨의 약속!'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이 약속은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국내유일 '성기능강화용 링' 특허 획득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 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

뉴맨! 50만 고객돌파 전세계 20여개국 수출!

T.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1 한도빌딩 6층